

[사회]

전남대 전공별 취업률 큰 차이

의대 99.3%... 생명과기학부는 12% 불과

전남대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률이 전국 4년제 대학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충격적 조사결과가 담긴 전남대의 '2007년 8월 및 2008년 2월 졸업자 취업 현황'을 보면 학과간, 단과대간 취업률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의과대, 간호대, 치과대, 약학대 등은 전남대 정규직 취업률의 평균을 높였다. 의과대는 취업대상자 145명 중 1명을 뺀 144명이 정규직 취업에 성공해 99.3%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간호대는 63명의 96.8%인 61명이, 치과대는 71명의 95.8%인 68명이, 약학대는 61명 중 82%인 50명이 각각 취업했다.

반면, 인문대와 법과대, 사범대, 예술대, 생명과학기술학부 등은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과학기술학부는 취업대상자 25명 중 단 3명(12%)이 정규직 취업에 성공

했다. 예술대는 178명의 12.9%인 23명, 사범대는 286명의 13.3%인 38명, 법과대는 186명의 13.4%인 25명, 인문대는 305명의 13.8%인 42명이 각각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대(51.1%), 수의과대(50%), 경영대(41.5%) 등은 전남대 평균 정규직 취업률(37.9%)을 웃돌았다. 여수캠퍼스는 공학대 50.2%, 문화사회학과대 37.2%, 사범대 37.5%, 수산해양대 38% 등으로 광주캠퍼스 평균(36.9%) 보다 다소 높았다.

학과별로는 사범대 가정교육과(5.6%), 과학교육학부 지구과학 전공(4.8%), 화학교육 전공(4%), 사회교육부 지리 전공(4.8%), 예술대 국악과(3.2%), 인문대 국문학과(8.2%), 사학과(7.1%), 자연대 생물학과(0%) 등이 취업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과 전하며 화해하세요”

‘둘(2)이 사과(4)한다’는 의미로 서로에게 사과를 전하며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는 애플데이(10월 24일)를 앞둔 21일 광주 효광중 학생들이 사과와 배를 들여보내고 있다. 학교 측은 나주지역 농민들이 배값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행사에 한해 배도 함께 준비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전국 최고

전체의 0.51%... 일본-중국-필리핀 순

전남지역의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남의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는 1천479명으로 전체 학

생 29만2천420명의 0.5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수는 경기도가 2천87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나 비율은 0.12%에 그쳤다. 전남에 이어 충남(1천116명·0.37%), 전북(1천79명·0.36%), 강원 지난해 4월 기준, 전남의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는 1천479명으로 전체 학

광주 소아과 병원 41% 항생제 과다 처방

광주지역 소아과 병원 10개 중 4개 이상이 감기나 독감 등에 대해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21일 배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동안 감기나 독감 등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70%를 넘는 소아과의 비중은 대구지역이

43.8%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고 광주가 41.3%로 뒤를 이었다. 전남지역 소아과는 28.6%로 8번째였고 전북지역(11.4%)과 강원지역(12.8%) 소아과는 항생제 투여를 자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이같은 수치는 다른 질환의 항생제 처방률이 대부분 10%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높아 농도에 국제결혼을 한 농촌 층이 많다는 사실이 통계에도 반영됐다. 광주는 322명으로 전체의 0.12%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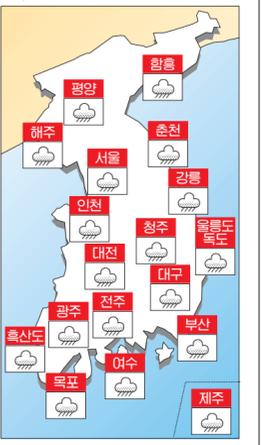
전남지역 국제결혼 가정의 출신국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이 749명(50.6%)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조선족) 352명(23.8%), 필리핀 286명(19.3%), 베트남 42명(2.8%) 등 순이었다. 광주 역시 일본(170명·52.8%), 중국(67명·20.8%), 필리핀(52명·16.1%) 출신이 대다수였다. 외국 인근로자 자녀의 숫자는 광주 8명, 전남 1명 등으로 미미했다.

전국적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최근 4년 증가율은 162%에 달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수는 지난 2005년 6천121명에서 ▲2006년 7천998명 ▲2007년 1만3천445명 ▲2008년 1만8천778명으로 4년 만에 무려 206.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외국 인근로자 가정은 ▲2005년 1천574명 ▲2006년 1천391명 ▲2007년 1천209명 ▲2008년 1천402명이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가을 가뭄에 '단비' 10월 22일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오후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Seoul, Gyeonggi, and Jeonnam.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과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과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과고 1.0~1.5m, 남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과고 1.0~2.0m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week of October 23rd to 28th, including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사시 2차 첫 시각장애인 합격

여성 38% 사상 최대

사법시험 2차 합격자 중 여성 합격자 수가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또 1947년 시작된 법조인 선발시험 이래 61년 만에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합격자가 나왔다.

법무부는 21일 제50회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자 1천5명을 발표하고 이 중 남성이 621명(61.79%), 여성이 384명(38.21%)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여성 합격자는 2004년 246명(24.38%), 2005년 323명(32.27%), 2006년 377명(37.62%), 2007년 354명

(35.12%) 등으로 그 비율이 꾸준히 높아졌다.

합격자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817명(81.29%), 비전공자는 188명(18.71%)이었고 최저 합격점수(컷트라인)는 총점 353.74점(평균 47.16점)이었다.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처음으로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주인공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최영(27·시각장애 3급) 씨로 지난해 1차에 합격했다.

3차 시험은 다음 달 18~21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되고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28일 발표된다. /연철뉴스

Advertisement for 'Daehakpyeonim' (대학편입) by Kim Young, featuring a large headline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부동산 전문회사 에셋코리아)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Iljung Han' (일중한의원) featuring medical services, doctor profiles, and contact information.